

부산불교 전법의 영원한 현역...

현익채 법사 (前 금정중학교장)



현익채(無心) 법사는 ... 1971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장을 맡아 청년 포교 활동에 힘써왔다. 부산 불교총연합회 회장, 부산 최초의 부산어린이회인 범문어린이회 조직, 부산불교지도위원 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립학교인 금정중학교에서 37년간 재직하며 교법사 및 교장으로 재직했으며, 부산불교 교육대학 총무처장 및 운영위원장, 부산불교신도회 임원, 재단법인불심홍법원 사무국장 중요단체의 실무를 맡아 부산불교 대중화에 헌신하기도 했다. 이후 13개 불교신행 단체 창립에 산파 역할을 담당했다. <부산불교총람> 등 16권의 저서를 냈으며 최근에는 <부산불교 100년의 발자취>를 정리해 부산불교 역사와 현황 파악에 큰 업적을 남겼다. 부산 불교인 대상, 흥법대상, 조계종 포교대상(원력상),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상 등을 수상했다.

‘걸어 다니는 부산불교 백과사전’이라 불리는 현익채 법사(前 금정중학교 교장·65)를 4월 2일 부산 금정산 법혜사에서 만났다. 부산대 재학시절 대학생 불교연합회 활동으로 시작해 13개 불교단체 창립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16권의 저술활동 등으로 부산 불교의 역사를 총망라해온 그는 46년 오직 전법의 길을 걸어왔다. 학교 업무를 마치고도 하루에 두 개 이상의 단체를 돌리며 소임을 다해온 그의 삶은 불교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그저 좋아서였다고 한다. 생사를 가르는 병마의 고통을 이겨내면서도 끈기있게 전법의 길을 걸은 현익채 법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부산 불교의 역사를 정리하다

현 법사의 저지않은 포교 인생 중에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고 하면 부산 불교의 역사를 정리한 저술활동을 들 수 있다. 1975년부터 현 법사는 <부산시대 대학생불교연합회 10년사> <부산불교안내> <부산불교총람> <간주된 부산불교50년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40년의 발자취> <금정중학교 100년사> <백년의 숨결 천년의 향기> <정진 30년> <교육의 길 전법의 길> <부산불교 100년의 발자취> 등을 발간했다.

“1971년 기본 예불문과 불교 상식이 포함된 대불련 회원 수첩을 처음 만들었어요. 반야심경 등이 포함되어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이었죠. 이후 고우의 법사와 함께 펴낸 <불자 수행의 길잡이> <부처님 만남은 기쁨이어라> 등의 공저를 포함해 16권의 책을 내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부산불교총람>이에요. 당시, 여러 단체의 일을 맡다보니 행사가 많았어요. 안에서 발송을 해야 하는데 정리된 파일이 전혀 없었죠. 매년마다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행사계획서와 문서 발송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의도에서 <부산불교총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발간한 <부산불교총람>은 사람은 물론 불교용품점까지 불교와 관련된 사람과 단체를 총망라했다. 부산 시내 748개의 사당과 431개의 불교단체 현황을 정리한 이 책은 부산 불교 단체의 임원 법회 현황 연락처 등을 총정리한 부산불교의 현주소를 집대성한 자료집이었다.

“사찰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자료를 요청했어요. 물론 안면이 있는 사찰에서는 자료를 주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았죠. 서적 외판원 취급을 받고 쫓겨나기 십상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간판에 적혀 있는 상호와 전화번호를 적으며 포기하지 않았죠. 책이 나온 후 불교 용품점에 발간된 책을 보시하니 상인들 대부분이 오해했다며 사과의 인사를 했죠.”

그렇다면 그는 이런 수모를 감당하면서까지 왜 기록에 매달렸을까? “불교 중흥을 위해서죠. 포교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면 곳곳에 숨어 있는 정보도 찾아낼 수 있었고 어떤 병에도 감내할 수 있게 되죠. 곳곳을 찾아다니며 확인하고 기록하고 정리했어요.”

검박한 성격인 그는 평생 그 혼한 자기용도 갖지

않았다. 버스와 지하철 혹은 도로로 대여섯번씩 방문해 정보를 확인했다. “정보가 없는 곳은 재차 확인하기도 했고 알음알음으로 물어 역사를 정리해 분류하고 정리했어요.”

지금도 그의 자료는 정확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시중에 떠도는 정보를 그대로 믿지 않고 눈으로 반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글재주도 시원찮고 여러모로 수행도 부족한데 원력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의 화두는 ‘부산불교중흥’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불법 흥포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죠.”

병중에도 불사를 잊지 않았다

그의 인생에도 큰 시련이 있었다. 1994년 건강이 극심하게 나빠지더니 급기야 피를 토했다. 위암이었다. 정신없이 책출간에만 몰두하다보니 건강을 살피지 못했던 것이다. 다행히 수술은 잘되어 완쾌했으나 몸무게가 15kg이나 빠졌다.

대불련 시절 범어사 수련회 예불서 발심

전법의 길 발원... 졸업 후 ‘홍법회’ 만들어

1997년 부산 최초 ‘범문어린이법회’ 조직

어린이 포교 교재인 <범회교본>도 발간

직장직능 불교단체 13개 창립 산파 역할

부산불교역사 정리 정념... 16개 저서 발간

동산대종사 50주기 추모집 발간 편집위원

“밤늦게까지 불교 일에 매달렸고 너무 골몰한 탓에 병이 난 거죠. 처음 병이 나서 수술하고 입원해서는 도반들 300여 명이 병문안을 왔어요. 도반들이 완쾌를 기원하는 법회를 열어 줄 정도로 많은 격려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이후로 17년간 잘 지나다가 금정중 교장 재직시 여러번 생사를 넘는 병마의 고통을 겪으며 네 번의 장폐색으로 입원도 하며 병원신세를 졌어요. 하지만 자신들한테도 알리지 않을 만큼 조용히 치료를 받았어요. 첫 번째 수술은 본의 아니게 많이 알려져 위로를 받았지만 여러번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물론 수술을 하고 병이 재발할 때마다 두려움이 일었다. 그럴 때마다 병원 법당에서 108배 기도를 하며 번뇌를 잠재웠다. “기도 정진 덕분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 탓인지 수술 후 회복도 빨랐어요. 위암 수술 일주일만에 밥 한 그릇을 다 비우니 주치의가 놀랄 정도였죠. 아프다고 쉬지 않았어요. 제 소임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주어진 일을 계속 이어나갔죠.”

물론 그의 병은 아직 완쾌는 되지 않았다. “오장육

부가 성치 않아요. 식사나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수시로 검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삶은 덤이라 생각해요. 아직 불교를 위해 더 일하라는 의미로 알고 기꺼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 부산불교 100년의 발자취 <물처럼 살거라>의 발간은 그의 이런 의지를 잘 보여준다. 1913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불교의 역사와 사진, 스님과 재가자들의 활동, 불교 신행 단체와 봉사 단체의 활동 내용을 361페이지의 책에 꼼꼼히 기록했다. 정금강행 보살의 뜻을 계승하고 정관 대종사의 보살핌이 있었지만 이 책은 현 법사였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청년 현익채 불교를 만나다

현 법사와 불교의 만남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대 불교학성회에 참석하게 된 그는 매주 법회와 수련대회에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범어사 세벽 예불의 감동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당시, 범어사로 수련회를 가서 성수 스님, 고산 스님, 양곡 스님, 성우 스님 등의 열광을 들었죠. 무엇보다 대중스님들과 세벽 예불을 드리며 느꼈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목탁소리 범종소리, 그리고 스님들과 함께했던 예불. 심장이 뜨거웠죠. 감동 그 자체였습니.”

이후 그는 대불련 부산지부 총무 소임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불교계 일을 시작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는 1970년 해인사 대불련 부산지부 제 4차 수련대회였다고. “수련회를 계획하면서 당시 해인사 주지였던 지관 스님께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지관 스님이 친서로 환영의 회신을 보내주어 수련대회를 갈 수 있었어요. 고암 스님의 법어와 수계중 수여, 성철 방장스님 친견, 일타 스님, 지월 스님, 지관 스님, 홍교 스님, 수산 스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생애 최대의 행운을 얻었죠.”

아직도 성철 스님의 법문의 그 가슴 속에 살아 있다고. “용서와 감사의 차이에 대한 법문이었죠. 불교에서는 용서라는 말이 없었죠.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하고 너는 못했다는 말인데 이는 상대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 하겠어요. 불교에서는 모두를 부처님처럼 존경해야 한다고 일체만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겠죠. 당시의 법문은 늘 제 가슴속에 남아 일상을 살아가는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1971년제 13대 부산대불련 부산지부장 소임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당시는 대불련의 전성기라 할 수 있을 만큼 젊은 재가자들의 활동이 컸어요.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불교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던 때였죠. 1975년 경에는 부산 시내 대부분의 대학에 불교학성회가 조직되었는데 회원이 1043명이었죠. 대불련 활동을 하다 출가를 하는 학생도 많았어요. 물론 저는 외아들이라 출가할 엄두는 못냈죠. 재가자로서 불교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었어요.”

청년 포교의 원력을 세우다

대학교를 졸업한 현 법사는 ‘홍법회’를 창립 불자

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방수연등전선 전문 KS제품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 Made in Korea -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 mm

- 2줄 이상일때 한줄당 가격입니다.
- 22cm, 23cm, 25cm (50구) @ 65,000 (2줄이상)
- 30cm (50구) @ 65,000 (2줄이상)
- 35cm (50구) @ 70,000 (2줄이상)
- 40cm (50구) @ 73,000 (2줄이상)
- 50cm (50구) @ 75,000 (2줄이상)
- 1m (50구) @ 90,000 (2줄이상)
- 2m (25구) @ 80,000 (2줄이상)

* 국산LED전구 (50개)
* @ 90,000 (개당 1,800원)



바림등 (6cm) @ 2,500 원 (60개이상)

바림등 (8cm) @ 3,000 원 (30개이상)



일반연일 6,000 일반연일대 6,000 바림연일 7,500 한지바림연일 천바림바림연일 30,000

동진기획 · 붓다쇼핑
☎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 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 불교용품카다루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농협: 010-2094-2991-09 ◆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

“부산불교중흥 평생 화두”



2006년 금정중 수계식, 금정중 교장 시절 학생 60% 이상을 수계를 받게 했다.



1990년 문경 김용사 부산불교중흥학생 연합회 합동수련회 개최 장면



부산 최초 불교어린이회인 법륜의 창립법회



조계종 전법사 품수 기념 사진



1983년 <부산불교안내> 발간 후 영유암에서 경과보고를 하는 현 법사

후배 양성의 원력을 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청소년 불자 양성을 위해 대불련 및 고등학생을 위한 불서보시, 대불련 간사단 선임 후배 육성 등에 정성을 기울였다. 또한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부산불교학생회 간부수련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흥법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포교 활동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 주목을 받았다. 1977년 5월 21일 법륜사에서 부산 최초로 이미에 선생과 함께 ‘법륜불교어린이회’를 창립하고 어린이 포교를 위한 <법보 교본>을 발간했다.

1980년대부터 청소년 법회가 붓물처럼 일어났다. 이후 1984년 전국 최초로 불교중학생불교연합회인 부산불교중학생연합회를 창립 중학생 포교에 앞장섰는데 이는 현재의 파라미터 부산청소년연합회의 모태가 되었다.

그의 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2006년에는 재직 중이던 조계종립 금정중학교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전교생 중 60%가 수계를 받게 했다. 또한 종교수업, 신앙조례, 반야원 법당 설립 등으로 교직원 신행 활동을 독려했다. 특히 학부모 모임 ‘금정반야불자회’를 결성 지금까지 매월 법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교사들을 위한 부산중등교원불

자회, 부산개인택시불자회, 부산교육경영직불자회 등 불교관련단체 13개를 창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45년간 불교활동을 해오면서 부처님 법 만난 이 기쁨을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부산불교신도회에서 총무로 재직할 때 함께 힘을 모아 부산불교은전기사회를 창립했어요. 이후 ‘부산개인택시불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반야회, 법륜회, 보현회, 정각회, 우리는 선우 등 6개의 은전기사 불자모임으로 가치를 뽐낼 수 있도록 도와줬죠.”

부산불교 곳곳에서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그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부산불교가 전성기만 못하다는 것이다. “어린이회, 중고등학생회, 대불련, 청년회는 전성기에 비하면 10분의 1로 줄었다고 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100명이 모여 법회를 하던 사람은 이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죠. 교계에서는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불자 1명이 1년에 한명 이상에게 전법할 수 있는 포교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왜 이 좋은 법을 혼자만 알고 있습니까? 함께 나눠야죠.”

현 법사는 불교단체나 활동가를 지원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산 전법단 발족

과 연구원을 설립해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밖에도 인터넷 포교 활성화, 보시 운동, 부산불교 연합단체의 단결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금정중학교 교장직을 퇴임한 현 법사는 학교 재직 시절보다 더 바쁘다고 한다. 가장 큰 소임은 동산대 총사 50주기를 추모하는 화보집 발간과 사진 전시회를 위한 편집위원 활동이다. 어디 이뿐인가? 부산파라미터 청소년 협회 운영위원, 대불련 동문회 자문위원, 사회복지법인 해월 이사, 부산불교거사님 이사, 최근 발족한 화엄승가회 자문위원 등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러니 그에게 하루가 부족하다. 새벽 1시 전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니 65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다.

이제 그는 뜻대한 불교 공부도 하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싶다고 한다. “제가 불교일 하느라 가족들에게는 뺄 점 남편이예요. 다행히 아내가 대불련 출신이라 많이 이해를 해주었지만 참 미안합니다.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법회도 다니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2의 불교 중흥이 찾아와 그가 가볍게 여행하며 공부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전법일기

기도 공덕, 신도에게 배우다

1명 신도와 사시기도

올 1월 일찌감치 찾아온 엄동설한에 겨울 추위가 더욱 지독하게 느껴지는 1월이었다. 아침공양을 하고 기도법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야 했다. 그날 사시기도 집전은 내가 해야 했다. 오전 10시, 불보살님 전에 다기(茶器)에 청정수 공양을 올리려 법당에 들어가니 시베리아에 왔나 싶을 정도로 법당 안은 추웠다.

법당 안에 전기온풍기가 비치되어 있던 했지만 엄동설한 동장군의 맹위에는 역부족이었다.

얼어붙은 법당 문고리를 열고 법당에 들어서니 날이 추워서인지 안에는 기도하러 오신 신도들이 없었다. 나도 사람이 다. 순간 ‘오늘은 부처님께서 자비를 나

이 들었다. 추운 날에 절에 기도하러 오신 보살님의 불심과 정성이 흐트러졌던 내 마음을 바로 잡아주었다.

나는 보살님한테 이렇게 추운데 무슨 사연이 있어 기도를 오셨는지 물어 보았다. 보살님은 내 물음에 수줍어하면서 오늘 자녀가 1차 실기 시험을 보는 날이라고 한다.

“혹시 축원 카드 등록 했어요?” 물어보니 보살님은 아직 사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한다. 새내기 불자였던 것이다. 나는 곧바로 종무소에 들어가서 1차 실기 시험 합격 발원 축원문을 작성했다. 작성이 끝나자 보살님은 기도비를 건넸다. 하지만 기도비를 받지 않았다. 이미 큰 기도비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살님 덕분에 오늘 내가 큰 공부를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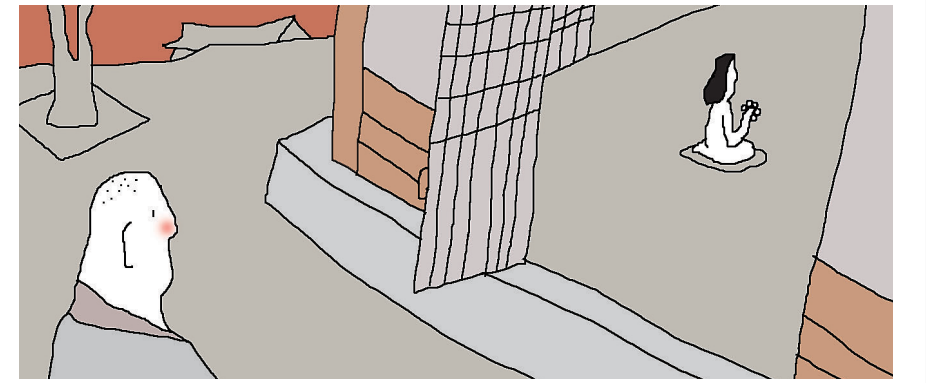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에게 배부시는구나. 너무 추우니 사시기도에 준비 3타만 올리라는 말씀인가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수행자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 했다.

공이여 죽비가 내 눈에 들어오고 세상을 다 얻은 듯 마음으로 날도 추운데 빨리 죽비 삼배 올리고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쉬어야지 생각뿐이었다.

기쁨 마음으로 불보살님 전에 탁, 탁, 탁 죽비 3타 삼배를 올리는 그 순간 법당 안으로 찬 바람과 함께 신도 1명이 들어왔다. 이 추운 날 사시기도에 동참하고자.

그때도 “내심 부처님께 삼배만 하고 가겠지. 보살님이 절을 하고 나가면 나 역시 함께 가야겠다”는 못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었다. 헌데 보살님께서 내 마음을 아셨을까. 이렇게 말했다. “스님, 기도는 저 혼자해도 되니 추운데 들어가서 쉬세요.”

보살님의 말을 드는 순간 나는 부처님께 즉시 참회를 드렸다. 출다는 핑계로 사시기도에 죽비 삼배로 예물을 대신하려 했던 수행자의 본분을 망각한 어리석은 생각에 뉘우수를 세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고, 보살님한테도 너무나 죄송한 마음

는데 어찌 감히 기도비를 받았겠습니까”라고 당황해하던 신도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법당으로 가서 죽비를 내려놓고 다시 목탁을 들었다. ‘부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참회 속에 한 시간 넘도록 보살님과 정성스레 사시기도를 올리고 1차 실기 시험 합격 소원성취 축원 발원도 올렸다.

나와 보살님과 돌이켜 불보살님께 드렸던 사시기도 시간은 엄동설한에도 남국(南國)에 와 있는 듯 따뜻했다. 그 뒤로도 보살님은 꾸준히 기도에 동참했고 공덕때문인지 몰라도 자녀가 최종 시험에도 합격을 했다.

불교 교리 중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훈이 있다. 자리아타(自利利他)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한다는 교훈이다. 타인에게 있어 진정한 도움, 진정한 자비를 주는 마음이 곧 부처 일 것이다.

그날의 보살님이 기도 원력은 나에게 바를 깨우침을 주는 스승이었다. 매일이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연호 스님 (서울 원각사 주지)

JJUN Heating System Module

“**전**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필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선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특이점
KIBO 기술보존기관 인증 받자기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www.jjunheating.co.kr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평창 : 010-6433-8612
김천 : 010-9091-4583
북광주 : 010-3641-0605
여수 : 010-3612-7784
수원 : 010-5211-7260
서산 : 010-7301-5854
진주 : 010-3583-7139
서광주 : 010-6890-0365
고성 : 010-4578-0961
남양주 : 010-9183-9729
양산 : 010-6294-6126
울산 : 010-4597-5577
익산 : 010-6610-2337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범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인치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일지야형 S형 T형리형

LED대야형 LED줄대야형 관전지 초

▶방생, 탐들이, 각종 행사에 적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